

평주개발, 베트남과 티타늄 합작

티타늄 광물 탐사·개발에 페로티타늄 생산 ... 희소금속으로 확대

자원개발기업인 평주개발은 5월29일 베트남 현지에서 티타늄(Titanium) 등 희토류 생산을 위해 베트남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했다.

김병량 평주개발 회장과 베트남 자원개발기업 마일링의 응웬 후이 끄엥 회장은 5월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마일링 C 평주개발 및 평주개발-마일링 C 등 2개 합작기업 설립계약을 체결했다.

마일링 C 평주개발은 마일링과 평주개발이 51%대49%로 합작하며, 평주개발-마일링C는 평주개발이 70%, 마일링이 30%의 지분을 투자한다.

합작기업 2사는 각각 티타늄 광물 탐사와 개발, 선광처리, 페로티타늄의 생산, 가공처리를 담당하게 된다.
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5/30>